

(가) 배도는 눈물을 흘리고 정색을 하며 말했다.

“시경에 ‘아낙네 잘못 없는데, 사내는 달리 대하네.’라고 이르지 않았습니까? 낭군은 이익과 콕소옥의 사연을 알지 않습니까? 낭군이 만약 저를 멀리 버리지 않을 것이라면, 원컨대 맹세의 글을 써 주십시오.”

이어서 배도가 고운 명주 한 폭을 꺼내어 주자, 주생은 즉시 붓을 휘갈겨 말했다.

“푸른 산이 늙지 않고 푸른 물이 내내 흐르듯이 내 마음 변치 않으리. 그대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하늘에 뜬 밝은 달에 맹세하리라.”

주생이 다 쓴 뒤에, 배도는 마음과 피로 봉하듯이 그 글을 정성껏 봉해서 허리춤 속에 넣었다. 이날 밤 시를 읊으며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니, 비록 김생과 취취나 위랑과 빙빙의 사랑이라도 여기에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다음날 주생이 비로소 어젯밤에 들었던 사람 소리와 말 울음 소리에 대해서 묻자, 배도가 말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붉은 대문을 단 집이 물가를 마주 바라보고 서 있는데, 이는 바로 옛날 승상(丞相)이었던 노모(盧某)의 대입니다. 승상은 이미 죽고, 부인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만을 데리고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춤과 노래로 소일하고 있는데, 어젯밤에도 말을 보내어 저를 불렀으나 제가 낭군 때문에 병을 핑계 대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나) 주생은 몸을 숨긴 채 다가가서 숨을 죽이고 엿보았다. 금빛 병풍과 채색 담요가 황홀하여 눈이 부시었다. 부인은 붉은 비단 적삼을 입고 백옥(白玉) 방석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나이는 50세 정도 되어 보였으나 지극히 한 쪽 눈을 감고 돌아보는 태도에는 아직 예전의 어여쁜 모습이 남아 있었다. 꽃다운 나이의 소녀가 부인 옆에 앉아 있었는데, 구름처럼 고운 머릿결에는 푸른빛이 맺혀 있고 아리따운 뺨에는 붉은빛이 어리어 있었다. 밝은 눈동자로 살짝 흘겨보는 모습은 흐르는 물결에 비친 가을 햇살 같았으며, 어여쁨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미소는 봄꽃이 새벽 이슬을 머금은 듯 했다. 배도가 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배도는 그 소녀에 비하면 봉황에 섞인 갈가마귀나 올빼미요, 옥구슬에 섞인 모래나 자갈일 뿐이었다. 그 소녀를 본 주생은 넋이 구름 밖으로 날아가고 마음이 공중에 뜬 듯이 황홀하였다. 그래서 몇 번이나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갈 뻔했다.

(다) 주생은 한번 선화를 본 후부터는 배도를 향한 마음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래서 배도와 술잔을 주고받는 사이에도 애써 웃고 기뻐할 뿐, 마음은 온통 선화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루는 승상 부인이 아들 국영을 불러 놓고 말했다.

“네 나이가 열두 살인데도 아직 글을 배우지 않고 있으니, 훗날 어른이 되어서 어떻게 자립할 수 있겠느냐? 배 낭자의 남편인 주생은 학문이 뛰어난 선비라고 들었다. 네가 가서 그에게 배움을 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중략>

이때부터 주생은 승상의 집으로 옮겨가 더부살이를 했다. 그러나 낮에는 국영과 함께 생활을 하고, 밤이 되더라도 문밧장이 굳게 잠겨 있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주생은 10여 일이 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자신에게 일렀다.

“처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본래 선화를 만나기 위함이었다.

이제 향기로운 봄도 이미 끝나 버렸는데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된다고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리겠는가? 차라리 당돌하게 ㉠담을 넘어 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일이 이루어지면 귀하게 될 것이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을 받아 죽으면 그만이다.”

마침 그날 밤 달이 뜨지 않았다. 주생은 몇 겹으로 된 담을 넘어 비로소 선화의 처소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굽이진 기둥과 돌아드는 복도마다 주렴과 장막(帳幕)이 겹겹이 드리워져 있었다. 주생은 한참 동안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인적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다만 ㉡주렴 뒤에서 선화가 촛불을 밝히고 악곡(樂曲)을 타고 있었다. 주생은 기둥 사이에 엎드려 선화가 타는 악곡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선화는 악곡을 다 연주하고 나서 작은 소리로 소자첩의 〈하신랑(賀新郎)〉이라는 사곡(詞曲)을 읊었다.

[가] 주렴 밖에 누가 와서 비단 창을 두드리는고?

안타깝게도 요대에서 노니는 꿈 깨뜨리네.

아아, 대밭을 스치는 바람이런가. [가]

- 권필, 주생전(周生傳) -

52 <보기>는 위 작품으로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배부한 참고 자료이다. 위 글과 <보기>를 읽은 후 학생들이 발표한 의견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보 기>
 <주생전'의 전체 내용 구조>

A. 주생이 배를 띄우고 잠들었다가 '전당'에 도착하여 어린 적 친구인 배도를 만남.
 B. 배도에게 연정을 느끼고 그와 동거하게 됨.
 C. 배도를 찾으러 선화의 집에 갔다가, 선화를 보고 반함.
 D. 선화의 동생인 국영이 가르침을 청해 와 그의 집에서 기거하게 됨.
 E. 밤을 틈타 선화를 만나 사랑을 이루고 매일 밤 남 몰래 만남.
 F. 사실을 알게 된 배도의 질투로 인해 선화와 헤어져 있으면서 서로 간절히 그리워 함.
 G. 배도가 병으로 죽고, 주생은 친척의 도움으로 선화와 혼약을 함.
 H. 혼인날을 기다리던 중, 왜적의 침입 때문에 구원병으로 징발되어 참전함.
 I. 전쟁 중, 선화에 대한 그리움으로 병이 들어 객사에 머물게 됨.
 ■ 객사에서 내(지은이)가 '주생'을 만나 이 이야기를 듣고 글로 씀.

- ① (가)에서 배도가 주생을 믿지 못했던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사랑할 수 있겠어.
- ② 우리가 읽은 부분은 B에서 E까지의 내용 중 일부인 것 같아. (다)의 뒤에는 주생과 선화가 인연을 맺고 계속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겠지?
- ③ 주생의 사랑이 매우 강해서, 선화와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행복한 결말을 맺는 다른 고전 소설들과는 사뭇 달라.
- ④ 주생은 배도를 찾으러 갔다가 선화를 보게 되었어. 작가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만나도록 하기 위해 배도가 선화의 집에 가 있던 것으로 설정한 게 아닐까?
- ⑤ 우연한 사건 때문에 원하던 바가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주생에게는 승상 부인이 자신을 국영의 스승으로 청한 것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어.

53 '주생'이 <보기>의 조건에 맞추어 [가]에 대해 화답하는 시를 쓴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상대방의 노래에 쓰인 소재를 활용할 것.
 ○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드러낼 것.

- ① 바람이 대밭에 스친다고 말하지 말라
그건 바로 고운 님이 오는 소리라네.
- ② 주름을 걷고 비파를 가볍게 희롱하니
노래 속에 담긴 원망을 그 누가 알리오.
- ③ 기쁘도다. 미인이 곁에 있으니
이 집에 가득한 꽃과 달을 어이 하리오.
- ④ 대밭 너머로는 가벼이 안개가 어리고
안개 속에는 가느다란 버들가지 실처럼 푸르렀네.
- ⑤ 피꼬리는 한껏 제 목소리를 뽐내는데
한스럽게도 젊은 청춘은 꿈속에서 시들어 버렸네.

54 '배도'가 (나)와 (다)에 소개된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후 '선화'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보 기>

선화 낭자에게
 자주 영국을 대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군요. 영국을 따주 하고 뽕쌈 드리기 어려운 내용이라 부득이 종이타 붓에 의지하여 간절한 부탁의 뽕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억자전 우연히 저의 낭군이 당신에게 미혹되어 마음이 변해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토록 굳게 사랑을 맹세했던 낭군이 당신을 탐하여 뽕쌈에 닿을 뉘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 ①
 더군다나 나약 함께 숙간을 주고받을 때조차 낭군의 마음이 당신만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야속하고 서운해서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 ②
 당신이 나약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착실과 교양이 높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이고, 아마 낭군도 거기에 미혹된 듯합니다. ----- ③
 그러나 그는 이미 저의 사랑을 맺어 함께 살던 사랑이고, 아직도 저는 그가 써 준 맹세의 글씨 고이 지니고 있습니다. ----- ④
 지금 낭군은 낭자의 동생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그 댁에 머물고 있으나,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거기 계속 머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⑤
 아무쪼록 현명히 판단하여 속히 돌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55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과 ㉡을 해석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소설에 등장하는 소재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두 인물이 만남을 이루는 과정에 등장하는 각종 소재를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하면 감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두 인물 사이에 일정한 경계선을 긋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인물들이 이를 넘어서기 위해 갈등을 하기도 하고 시련을 겪게도 함으로써 독자들이 그 만남의 기쁨에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① 둘 다 만남을 위해 넘어야 할 경계선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 ② 둘 다 그것을 넘어서려는 '주생'에게 심리적 갈등을 불러일으켰을 것 같아.
- ③ ㉠의 경계선을 넘는 데에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도움이 된 것 같아.
- ④ 주생의 결심 이후에 ㉠은 장애물로서의 성격이 약화되었어.
- ⑤ 두 사람의 만남 이후에는 ㉡은 주생의 심리적 갈등을 더 강하게 불러일으킬 거야.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주생의 친척 중에 장씨라는 사람이 있었다. 주생이 장씨 집에 몸을 의탁하러 가니, 장 노인은 주생을 매우 관대하게 맞아 주었다. 주생은 비록 몸은 편했지만, 선화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만 갔다. 이렇듯 선화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봄이 돌아왔는데, 그 해는 바로 만력 20년 임진년이었다. 장 노인이 주생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 까닭을 묻자, 주생은 감히 숨기지 못하고 사실대로 말씀드리었다. 이에 장 노인이 말했다.

“너에게 그런 사연이 있었다면, 왜 일찍 말을 하지 않았느냐? 내 처가 노 승상과 동성(同姓)으로, 그 집안은 대대로 우리와 통혼했던 사이다.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해 혼사를 추진하겠다.”

이튿날 장 노인은 아내 노씨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하고, 늙은 하인을 전당에 보내어 혼사를 의논하게 하였다.

선화는 주생과 이별한 이후 침상에 누워서 지리한 세월을 보내니, 어여쁜 얼굴이 몹시 야위고 초췌해 있었다. 부인도 선화가 주생을 사모하는 것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주고 싶었으나 주생이 이미 떠나 버렸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노씨 부인의 편지를 받고 온 집안이 놀라며 기뻐하였으며, 선화도 억지로 침상에서 일어나 머리를 빗고 세수를 하니 예전의 모습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두 집안은 그 해 9월에 혼인하기로 약속하였다.

주생은 날마다 포구에 나가서 선화네 집에 보낸 하인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채 열흘이 못 되어 하인이 돌아와 정중한 뜻을 전하고, 선화가 손수 쓴 편지를 주생에게 주었다. 주생이 편지를 뜯어보니, 분 향기가 나고 군데군데 떨어진 눈물 자국이 배어 있었다. 그래서 주생은 편지지만으로도 선화의 슬픔과 원망을 상상할 수가 있었다.

‘박명한 여인 선화는 정성을 다해서 주랑께 글씨를 올립니다. 언더 위의 푸른 버들을 볼 때마다 임 생각이 간절하였습니다. 가지 위에 앉은 피꼬리 소리를 들을 때면 새벽의 꿈길도 몽롱하더니, 하루아침에 고운 나비는 정을 전하고 백학은 길을 인도하여, 동산에 달 휘영청 밝은 저녁 낭군님은 담을 뛰어넘어 내 방에 찾아와서 깊은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야 어느 때든 변할 리 있었겠습니까마는 뜻대로 되지 않는 애달픈 심정은 그지없었습니다. 아름다운 기약을 이루지 못하게 되니, 마음은 여전히 사랑하면서도 몸은 절로 야위어 갔습니다. 님이 떠난 뒤 봄은 다시 찾아왔지만 고기는 물속으로 숨고 기러기는 날아가 버렸으며, 빗줄기는 배꽃을 때렸습니다.

① 날이 저물면 문을 닫고 온갖 상념에 젖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었으니, 제 몸이 이렇듯 수척하게 된 것도 모두 낭군 때문입니다.’

【중략 줄거리】 선화의 편지를 받은 주생은 반가운 마음에 선화와 의 혼인을 앞당기려는 편지를 쓴다. 그리고 장 노인에게 요청하여 그 편지를 다시 전당에 보내려고 한다.

이때 조선이 왜적의 침략을 받고 매우 다급하게 중국에 구원병을 요청하였다. 명나라 황제는 조선의 요청을 받아 이렇게 말하였다.

“중국과 조선은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낸 이웃 나라이므로 그

나라가 위급함을 보고 어찌 돕지 않을 수 있으랴! 만약 조선이 패배하면 압록강 서쪽은 편히 잠잘 수 없을 것이니라.”

하고 이여송 장군에게 명령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조선을 도와 왜적을 토벌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절강 지역 여러 고을에서 다급하게 병사를 징발하였다. 이때 유격장군은 본래부터 주생의 이름을 잘 알고 있는 자로서, 주생을 불러들여 서기의 임무를 맡겼다. 주생은 사양했으나 장군이 들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서기의 임무를 맡았다.

이듬해 계사년 봄에 명나라 군사가 왜적을 대파하고 경상도까지 추격해 왔다. 주생은 선화를 한시도 잊지 못하다가 병이 들어서 군대를 따라 남하하지 못하고 송도에 머물렀다.

내가 마침 일이 있어 송도에 갔다가 객사에서 주생을 만났다. 그러나 말이 서로 통하지 않아 글로써만 마음을 통할 수가 있었다. 주생은 내가 글을 안다 하여 매우 극진하게 대우하였는데, 내가 병이 나게 된 까닭을 묻자 주생은 슬픈 표정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이날 비가 내려서 나는 주생과 함께 등불을 밝히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였다. 이때 주생이 ‘답사행’ 한 수를 지어 나에게 보여 주었다.

[A]

외로운 그림자는 의지할 곳 없고,
이별의 회한은 토로하기 어려운데,
어둠 속에서 돌아가는 기러기는 강가 나무숲에 이르렀네.
이미 객사의 희미한 등불에 마음 설레었으니,
어찌 다시 황혼에 내리는 빗소리를 감내하리?

낭원(蘭苑)*은 구름이 아득하고,
영주(瀛州)*는 바다에 막혔으니,
옥루의 구슬주렴은 어디에 있는고?
외로운 발자취 물 위의 부평초 되어,
하룻밤 사이에 오강(吳江)으로 떠가길 바랄 뿐.

[A]

내가 이 시를 손에서 놓지 않고 두세 번 읽어 시 속에 담긴 연정을 알아냈다. 그러자 주생은 감히 속이지 못하고 내가 앞에 썼던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와 이별하였다. 그는 재삼 나에게 사례하면서 간절히 부탁하였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를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그 시가 아름다웠던 탓인지 그들의 기이한 만남과 아름다운 기약에 슬픔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 방으로 돌아와 붓을 잡고 이 이야기를 쓴다.

- 권필, 「주생전(周生傳)」 -

* 낭원, 영주: 신선이 사는 곳.

40. 밑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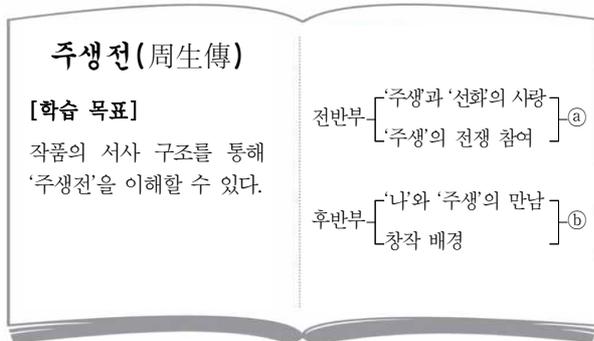
- ① 주생과 선화의 혼인은 전쟁으로 인해 좌절된다.
- ② 선화는 주생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한다.
- ③ 유격장군은 주생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서기로 임명한다.
- ④ 장 노인은 주생과 선화의 결연을 위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
- ⑤ 명나라 황제는 자국의 안위를 위해 조선에 원군을 파병한다.

41. [A]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드러낸다.
- ② 주인공의 위기를 암시하는 복선이 된다.
- ③ 주인공이 의혹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 ④ 주인공의 현실 비판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⑤ 주인공의 과거 경험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42. 다음을 바탕으로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의 중심인물이 ㉡에서는 주변 인물이 된다.
- ② ㉠이 ㉡에 비해 장면의 전환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 ③ ㉠에서 표출된 인물 간의 갈등이 ㉡에서 해소된다.
- ④ ㉠과 ㉡ 모두 기이한 사건이 발생한다.
- ⑤ ㉠과 ㉡ 모두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해 논평한다.

43.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군분투(孤軍奮鬪)
- ② 사고무친(四顧無親)
- ③ 오매불망(寤寐不忘)
- ④ 전전긍긍(戰戰兢兢)
- ⑤ 진퇴양난(進退兩難)